

1. 서 론

1947년 7월 9일 조선전기학회로 출발한 본학회는 그동안 해방당시의 보잘것 없던 전기산업을 반세기만에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국내 유수의 학회로 성장하여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다.

본학회는 창립당시에도 소규모이나마 학회로서의 틀을 갖추어 출발하였다. 그러나 6.25동란을 겪으면서 그 후유증으로 50년대의 학회활동은 필사적인 생존의 차원이었으며 60년대에 이르러서야 안정되기 시작하였다.

본 학회에는 정관변경, 임원, 사업계획, 예산및 결산등의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총회, 학회의 운영에 회원들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평의원회, 실제로 학회의 살림을 책임지는 이사회가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여러 업무를 분담하여 관장하는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조사위원회등 여러 위원회가 있다. 또한 각종 학회활동의 행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학회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학회의 재무상황과 사무국의 변천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2. 총 회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정관에 의하면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 서울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후에 여러번 정관이 변경되었으나 년 1회 개최의 원칙은 고수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6.25동란으로 1951년~1953년에는 총회가 개최되지 못하였으며 1958년에도 정기총회가 없었다. 1979년에는 총회의 개최시기가 연초에서 연말로 변경됨에 따라 1월과 11월에 두차례의 정기총회가 있었다. 또한 1973년, 1976

년, 1978년에는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현재까지 창립총회, 46회의 정기총회, 3회의 임시총회를 합하여 50회의 총회가 개최되었다.

특기할 사항으로는 1949년 3월 5일 남선전기주식회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임시총회(후에 제2회 정기총회로 계산)에서 학회의 명칭을 대한전기학회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제2회, 제5회, 제7회, 제9회, 제11회 정기총회는 성원미달로 인하여 유회되었으나 총회의 의안을 서면투표에 붙여 승인을 받아 결의할 정도로 초창기의 학회활동은 어려움이 많았다.

3. 평의원 및 이사회

현재의 정관 제22조및 제25조를 보면 평의원회와 이사회 의 기능은 확연히 다르다.

그러나 창립당시의 정관 제29조에 의하면 회의는 총회및 임원회의 두 종류이며, 제17조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서무간사 1명, 회계간사 1명, 편수간사 2명, 평의원 5명 총 11명의 임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초창기에는 임원에 평의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임원회가 현재의 평의원회와 이사회의 기능을 겸하고있었다.

이후 1955년 제5회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에는 제33조에서 회의를 총회및 이사회의 두종류로 하여 이사회란 명칭이 처음 나타난다.

또한 제19조에는 임원으로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지부장 약간명, 서무이사 1명, 회계이사 1명, 편수이사 2명, 이사 9명, 감사 2명을 두도록 되어 있다. 이중에서 회장, 부회장, 서무이사, 회계이사, 편수이사가 평상시의 학회업무를 보았으며 정관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은 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현존하는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이 임원회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사회라는 명칭은 세군데에서 발견된다. 이때의 임원회 기록을 보면 대부분이 현재의 이사회 기능을 하고 있으나 일부는 현재의 평의원회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당시에는 정관상의 명칭인 이사회와 창립시의 명칭인 임원회가 혼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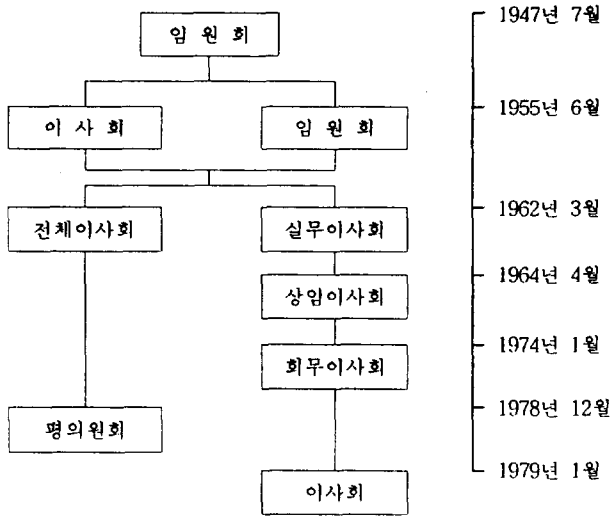


그림 1 평의원회와 이사회 명칭의 변천과정

1962년 회의록에는 이사회와 임원회의 기능을 구분하여 전체이사회, 실무이사회로 나타나 있다. 이후 전체이사회는 1978년 12월부터 평의원회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실무이사회는 상임이사회, 회무이사회로 개칭을 거듭하다가 1979년부터 이사회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림 1은 평의원회와 이사회 명칭의 변천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3.1 임원회

임원회는 창립때부터 1955년 6월 4일에 개최된 제5회 정기총회에서 정관이 변경되어 이사회로 대치될 때까지 존속하였으며 현재의 평의원회와 이사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창립시의 정관 제36조에 의하면 필요시에는 임시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개최하여 학회의 사업집행의 요강 특히 부의된 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담직원 한명 없이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1947년 7월 9일부터 1948년 9월말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회의를 개최하였으며(전기공학 제1집에서 발췌) 1949년 3월 5일부터 1950년 2월 25일까지 1년동안에 33회의 임원회를 개최(전기공학 제4집에서 발췌)할 정도로 빈번하게 열렸다. 이후 6.25동란중에도 학회활동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1953년 1월 10일 발행된 전기공학 5집에는 「그간 주당 1회꼴로 40여차례의 임원회를 개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3.2 이사회(임원회)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5회 정기총회에서 정관이 변경됨에 따라 임원회가 이사회로 대치되고 임원들의 명칭도 간사에서 이사로 바뀌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이사들이 참석하는 이사회를 매주 개최하여 허다한 학회의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어 현재의 이사회 기능을 갖는 임원회가 존속하였다. 1955년 10월 15일 발행된 전기학회보 제1호에는 「단기 4287년 4월이후 현재까지 40여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학회운영의 제반 안전을 처리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회의록에는 두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원회”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단기 4288년(서기 1955년) 5월까지의 구정관에 의해 임원회라고 불려야 함에도 이 기간중의 회의도 “이사회”로 칭하기도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당시에는 현재의 평의원회 기능을 갖는 이사회가 있고 현재의 이사회 기능을 갖는 임원회가 비공식적으로 존재하였으며 두 명칭이 혼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3.3 평의원회

평의원회와 이사의 기능구분이 확실해진 것은 전체이사회와 실무이사회로 구분되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1959년 4월 11일 이후 1962년초까지의 회의록이 유실되어 전체이사회 시작점은 확실하지 않으나 60년대의 회의가 3월 1일을 시점으로 하고 있으므로 회의록이 정비되어 있는 1962년 3월을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1962년에는 모두 여덟차례의 전체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회수를 명기하였다. 이후 1967년 2월까지의 회수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1967년 3월부터 차수가 부여되었다. 현재의 평의원회 명칭은 1978년 12월부터 사용되었다.

3.4 이사회

이사회는 임원회에서 실무이사회, 상임이사회, 회무이사회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체이사회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으며 현재 회의록이 발견되지 않는 실무이사회를 거쳐 첫 상임이사회가 개최된 것이 1964년 4월 20일이다. 이후 1974년에 회무이사회로 개칭되었다가 1979년부터 이사회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55년 6월부터 1962년초까지의 이사회는 현재의 이사회가 아니라 평의원회의 전신으로 보아야 한다.

4. 제위원회

학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립시의 전기공예위원회등 여러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가 소멸하곤 하였다. 현재에도 위원회가 다수 있으나 정례회의화된 주요 위원회로는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조사위원회가 있다.

4.1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본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논문지(영문지 포함)를 편집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로서 학회지와 논문의 발간기획의 수립, 투고논문의 심사 및 평가, 기타 편집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편집위원회의 전신은 편수위원회로서 1989년에 편집위원회로 개칭되었다. 편집에 관한 업무는 창립당시부터 이루어져 편수간사(1955년 6월부터는 편수이사) 2명이 이를 담당하였으며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편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현재의 편집위원회 규정은 1973년 7월 25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그간 4차례 규정변경이 있었다. 그러나 이미 1962년에 편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으며 편수위원회 규정 및 회의록이 있다. 따라서 편집위원회의 시점이 불분명하다.

4.2 학술위원회

학술위원회는 본학회가 주최하는 하계학술대회 및 추계학술대회와 같은 종합학술대회를 기획, 진행,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다. 학회창립 이래 학술에 관한 업무는 계속되었으나 이것이 정례화된 것은 1991년 2월 8일 제2차 이사회에서 학술위원회 규정(안)을 승인(1991년 2월 21일 제1차 평의원회에서 동의)하면서 부터이다.

4.3 조사위원회

회원들의 중지를 종합하여 전기학술 및 그 응용에 관하여 권위있는 전문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산업과 민생문화에 기여하는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여 회원들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사위원회는 전기학술 및 그 응용의 내외동향을 조사하며 신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상의 문제, 산업계 공통의 기술적 애로사항, 전기기계기구와 재료의 표준화문제 및 기타 전기기술에 관한 사항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본학회에서는 창립 이래 국가기관이나 산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조사연구를 수행하였으나 단편적이었으며 학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1991년 2월 8일 제2차 이사회에서 규정이 승인됨으로서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1991년에 초전도, 고속전철, 전자장 해석기법, 소형전동기 등 4건의 조사연구 사업을 시발점으로 하여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동안 “초전도응용 기술현황” 등 11권의 기술조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5. 재무의 변천

본 학회의 결산자료는 1996년까지 50년간의 회계년도 중 34년분의 수입 및 지출내역이 남아있다. 나머지 16년의 자료는 일부만이 흔적이 남아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료가 완전히 유실된 해(11년) : 1947년, 1948년, 1950년 ~ 1956년, 1960년, 1961년
- 예산서만 남아있는 해(3년) : 1959년, 1975년, 1986년
- 결산자료 중 수입 및 지출의 총액만 남아 있는 해(2년) : 1962년, 1963년 초창기 학회의 재정이 어렵던 시절과 6.25동란의 영향을 받은 50년대에는 결산자료가 없을 수 있

으나 학회활동이 안정되기 시작한 1962년부터의 결산자료가 4년분씩이나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음은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5.1 예산 개황

예산을 집행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초창기인 1949년에 485,115환이었으며 1957년에 100만환을 넘어서었다. 1962년에는 십대 일로 환율이 변동되면서 집행액이 225,837원이던 것이 1964년에 100만환을 넘어서었으며 1975년에는 1,000만환을 넘어서었다. 이후 1983년에 1억환을 넘어서서 1996년에는 575,409,533원으로 1949년에 비하면 무려 11,861배의 규모로 확대되었다.

예산을 수입면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1949년도 결산보고와 1996년 손익계산서의 자료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1) 1949년 수입 : 521,679.92환
 - 당해년도 수입금 : 426,900환
 - 일반회원 입회금 및 회비 : 1,900환
 - 사업유지회원회비 : 425,000환
 - (남선전기(주) 130,000환, 경성전기(주) 165,000환, 조선전업(주) 75,000환, 조선전선(주) 55,000환)
 - 전년도 이월금 : 94,779.92환
- 2) 1996년 수입 : 619,259,344원
 - 당해년도 수입금 : 603,914,170원
 - 일반회원 회비 : 106,075,000원
 - 특별회비 : 140,139,030원
 - 발간수입 : 173,865,000원
 - 학술대회 : 118,171,000원
 - 찬조금 : 13,569,649원
 - 보조금 : 21,700,000원
 - 조사수입 : 25,189,291원
 - 잡수입 : 5,205,200원
 - 전년도 이월금 : 15,345,174원

이상의 수입금 내역을 살펴보면 초창기인 1949년에는 사업유지회원들의 회비가 주된 수입원이었으며 일반회원들의 회비는 불과 0.445%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96년에는 수입의 내용이 매우 다양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회원의 회비도 17.57%로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 전체적인 수입규모는 11,870배가 증가하였고 당해년도 수입금만으로 계산하면 14,146배가 증가하였다. 그럼 2는 수입을 기준으로 한 연도별 예산의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5.2 연도별 집행내역

학회의 재정규모가 일만배 이상 증가하면서 집행의 내용도 다양해졌으며 대략 5년을 주기로 집행내역이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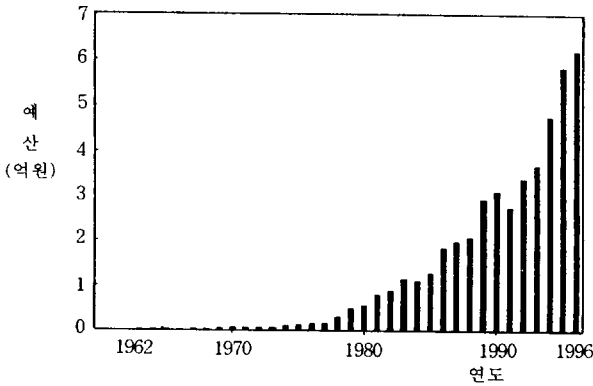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예산규모

1949년의 경우 인건비가 29.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학회지의 발간비용과 회의비가 그 다음이다. 이에 비하여 1996년의 경우에는 발간사업비가 32.79%로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학술발표비용이다. 이와 같이 학회가 성장하면서 학술활동에 관한 예산집행이 증가 되고 있다.

6. 학회 사무국의 변천

6.1 사무소

본 학회는 1947년 7월 9일 창립되면서 사무소를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상공부 전기국에 두었으나 실제로는 경성전기주식회사에서 사무를 보았다. 1950년 6.25동란이 일어나면서 1952년 부산의 박홍주 회원 소유의 대한합동건설주식회사내로 옮겼다가 서울 수복후 1953년 다시 서울로 이전하여 1997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1947년 7월 창립이래 1997년 현재까지 사무소의 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947년 7월 9일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5 경성전기주식회사내
- 1952년 6월 7일 부산시 충무로 4가 10 대한합동건설주식회사내
- 1953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203 대한합동건설주식회사내
- 1958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가 30
- 1960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가 1-3
- 1961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가 20-1 동미빌딩 501호
- 1962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72-2 이천전기빌딩 2층
- 1967년 7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11-4 전기회관 3층(회의실 및 도서실 15평(305호), 사무실 15평(306호) 총 30평)
- 198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본관 5층, 회의실 22.5평(503호), 사무실 22.5평(505호), 회장실 7.5평(506호), 서고 7.5평(406호), 총 60평)(1987년 1월

서고 반납후 총 52.5평)

- 1995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신관 9층 901호 (사무실 42평, 회의실 36평, 회장실 10평, 서고 12평 총 100평)

1953년 서울로 환도한 이후 당시 대한전선 설경동 사장, 본학회 윤일중 회장 등 각계인사 24인의 찬조로 1958년 2월 1일 을지로 3가에 조그마한 전용사무소를 개설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부터 여러가지 사정으로 사무소를 옮겨 다니다보니 학회의 어려움이 많았다. 사무소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던 차에 마침 이천전기 장병찬 사장의 특별배려로 1962년에 현 미도파백화점 바로 옆에 있던 이천전기 본사 빌딩(3층)의 2층계단 입구 한쪽편 약 10여평(실평수 7평)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서 사무소 운영의 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그후 대한전기협회가 주동이 되어 우리나라 전기계의 염원인 전기회관이 1967년 6월에 준공됨에 따라 당시 전기회관 건립추진위원회에 본학회 우형주 회장이 회장단으로 참여한 바 있어 전기회관 3층에 입주하게 되었다. 이때 이천전기공업(주) 등 42개 업체가 501,000원, 회원들이 38,094원 계 539,094원을 찬조하여 입주할 수 있었다.

전기회관의 사무소는 본학회 최초의 완전한 사무실로서 본학회가 오늘의 국내 정상급 학회로 크게 성장발전하는데 있어 튼튼한 기초를 이루게 한 사무실이었다.

197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어감에 따라 과학기술회관의 건립이 구체화되었다. 본학회도 이에 동참하여 30평의 건립입주기금을 마련하여 납부하였고 1985년 말에 과학기술회관 5층에 본학회용 30평에 30평을 추가 임차하여 입주하였다.

1980년대 수출증대정책 등으로 경제성장과 아울러 눈부신 과학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국제회의장을 갖춘 지하 4층, 지상 12층의 최신식 빌딩인 과학기술회관 신관이 1995년 7월에 준공되었다.

본학회는 1994년(당시회장 이동호) 제7,8차 이사회에서 21세기 학회발전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학기술회관 신관으로 확장, 이전하기로 하고 100평을 입주신청하였다. 1995년에는 한송엽 회장이 4평값을 찬조하는 등 회원찬조금 1억953만원, 한국전력공사가 10평값을 찬조하는 등 산업계 찬조금 7,920만원과 학회의 자체확보금 5,127만원으로 전세입주금 2억4천만원을 충당함으로써 1995년 7월 11일 과학기술회관 신관의 901호에 입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6.2 사무국 직원

본학회 설립초기에는 경성전기주식회사내에서 업무를 보았으며 서기 이춘길씨가 수고하였으나 6.25동란중 행방불명되었다. 이후 1953년 12월에 촉탁 1인을 두었으며 이때부터

학회 사무소 전담직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사무소의 잦은 이전으로 체계능을 하지 못하였다. 1962년에 김순구씨가 서기로 들어와 1973년 2월 28일까지 11년간을 근무하였는데 본학회 초대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58세때 퇴직하였다. 1962년 9월 2일 학회 사무소가 이천전기빌딩 2층으로 이전한 후 비좁은 공간이었으나 그래도 안정된 분위기에서 학회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1965년에 편수직(기술직) 오영돈씨를 채용하여 1965년부터 학회지를 년 4회 계간에서 년 6회 격월간으로 확대발간하였다.

1967년 7월 22일 전기회관으로 확장이전한 본학회는 학회 학술활동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학회 사무국의 기능을 하나씩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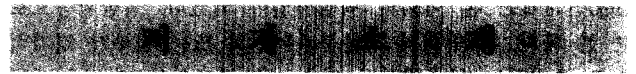
1969년 5월에는 편수직을 담당하던 오영돈씨가 사직하고 진동신씨를 편수직으로 채용하여 학회지 편집과 학술발표 및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후 초대 사무국장이던 김순구씨가 1973년 2월 퇴직하면서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있었으며 1976년 4월에 복직한 진동신 사무과장이 사무총괄 및 학회지 편집을 담당하였다.

1979년 1월부터 학회지를 격월간에서 월간으로 확대발간하였다. 당시의 학회지 월간발행은 국내학회로서는 최초의 일로서 학회의 학술활동사업이 점차 확대되어감에 따라 사무국 업무도 증대되었다. 이와 함께 학회 사무국의 대외위상과 기능을 고려하여 1979년 5월에는 7년간 공석으로 있던 사무국장에 진동신 사무과장을 승진발령하여 사무국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업무를 보다 능률적으로 관리운영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본학회 사무직원의 평균 근무기간이 2~3년밖에 안되어 많은 직원이 학회를 거쳐 갔으며 이로 인하여 학회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바 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1997년 현재에는 진동신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학술및 총무담당 진필준 대리, 편집담당 이정복, 이상필, 회원담당 김해영, 경리담당 황교란 등 6인이 학회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7. 맺음말

본고에서는 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학회 활동중 총무및 행정의 역사를 기술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학회지 및 관련자료를 십여차례 숙독하고 정리하였으며, 각종 회의록을 가급적 일시, 장소, 주요안건, 회의명칭, 참석인원을 파악하여 학회 50년사에 수록하였다. 빛바랜 누런 종이의 회의록을 읽으면서 초창기 학회 원로들의 집념어린 노력의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며, 6.25 동란의 와중에서도 거의 매주 임원회를 개최하였다는 기록 앞에서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6.25동란중에 이전의 학회원고 및 기타 서류일체를 보관하던 서기 이춘길씨가 행방불명된데다가 동란후에도 난로 하나, 타자기 한대의 구입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정도로 학회살림이 어려워 학회 사무소를 자주 이전하다보니 많은 자료가 유실되었다. 이후 60년대에 이르면서 학회가 안정되기 시작하여 학회 활동이 활발해졌으나 뜻밖에도 80년대의 일부 자료가 유실되어 있고 자료의 훼손이 종종 발견되어 자료의 보관, 유지가 간단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점은 학회 사무국이나 회원 모두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다.



홍순찬(洪淳瓚)

1973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공학사), 1975년 동 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공학석사), 1985년 동 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공학박사), 1975년~

1978년 해군사관학교 교수부 전기공학과 전임강사, 1978년~현재 단국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교수, 1986~1987년 Texas A&M Univ. 방문교수, 현재 당학회 기획이사